

나주시, 어두운 통로박스 불 밝혔다



나주시가 저녁 시간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와 마을을 잇는 어두운

사업비 6억원 투입 98개소 LED등기구 설치 야간 시민 보행 안전·범죄 예방 큰 도움 기대

통로박스에 환한 빛을 비쳤다. 나주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6억 원을 투입, 보행자와 차량이 오가는 통로박스(암거) 98개소에 LED등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통로박스 15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LED등기구 187개를 신규 설치, 180개를 교체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실내체육관 등 48개소(143개)에 LED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어둡고 흐린 날씨에 조명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통로가 한층 밝아지면서 안전 보행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장 민원이 빈번했던 경원리 한수제 통로박스에 노후 조명시설을

철거, LED등기구로 교체했으며 국도 23호선 등 농경지·자연마을을 가로지르는 통로박스에 LED터널을 신설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은 물론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제일도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지역농업 특화품목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팔 걷어

담양군농업인대학 포도 샤인머스켓과정 25명 참여

담양군에서 운영 중인 제14기 담양군농업인대학의 샤인머스켓 과정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 구성으로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대학에서는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으로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매년 작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 품목은 포도로,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는 샤인머스켓 과정을 개설해 전국의 유명명 전문강사의 이론교육과 더불어 선도농가 현장학습, 선진지 현장견학 등의 구성으로 8개월 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추진한 현장학습에서는 가사문학관, 고서면 샤인머스켓 재배 선도 농가를 방문, 현장에서의

에로사향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배 적기에 맞는 기술 및 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0년 넘게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가사문학관 김동운 선도농가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 '삼색 컬러포도'라는 새로운 구성으로 포도를 판매하고 있으며, 고서면 박운순 농가는 7년 전부터 샤인머스켓 품종갱신을 위해 직접 묘목을 알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규 농가의 멘토 역할 또한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농업인대학 교육 일정에도 샤인머스켓 재배 새내기인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가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탄소포인트제 175세대 인센티브 지급

구례군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175세대에 33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하여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이상 10%미만 연 최대 3만 5,000원, 10%이상 15%미만 연 최대 7만원, 15%이상 연 최대 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교통과 및 읍·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구례군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에 한해 신규가입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L 10매를 지급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청계동 자연휴식지 행락철 운영 중단

재해복구 공사·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8월 31일까지

곡성군이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계동 자연휴식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계동 자연휴식지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인근 도심에서 휴가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청계동 자연휴식지에는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와 복

구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올 초 재해복구를 시작했지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행락철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은 해당기간 동안 2인 1조의 행락질서 계도요원을 구성해 방문객 진입을 차단하고 자연휴식지 내 불법행위 등을 계도할 예정이



다. 군 관계자는 “시원한 피서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께 아쉽게 됐다. 내년에는 방문객들이 더 좋은 모습의 청계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원예심리지도사 교육생 20명 전원 자격증 취득

화순군, 원예심리지도사 교육생 20명 전원 자격증 취득



화순군은 지난 1일 원예심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생 20명 전원이 원예심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

다. 교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예심리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10

회 진행됐다. 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참여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자격 시험은 원예학, 사회복지론 등 필기시험과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계획안 등 개인별 발표로 이뤄졌다. 포트폴리오(40점), 봉사활동 및 원예심리프로그램 계획서(40점), 필기시험(20점) 항목으로 평가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군민의 정서, 심리 등 건강을 도모하는 농촌 치유농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긴급 지원

사과·배 재배 농가 공급...“선제적 대처로 농가 소득원 보전”

장성군이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 나무의 잎, 줄기,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사된다. 세균에 의해 발생되어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즉시 폐원 조치되며, 3년간 같은 품종의 작물 재배가 금지된다.

장성군은 예비비 4300만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마련, 지역 내 전체 과수농가(287.1ha)에 무상 지

원했다. 공급된 약품은 화상병 전문 약제로, 생육기 전반에 걸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방제 시에는 1병(250g)을 25말(500L)에 희석해 살포하면 된다.

방제와 함께, 과수 농가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작업을 마친 농기구는 반드시 소독하고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37)로 신고해야 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